

082 AI 격차

AI Divide

AI 기술과 활용 능력 수준의 차이로 인한 사회·산업 간 불균형

- 데이터·인프라·인력·정책의 차이로 국가·기업·개인 간 기술 발전 속도와 활용 격차가 커지는 현상
- 기술 접근성·활용 역량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이며, 개방·공유·교육을 통한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이 대응의 핵심

AI 격차의 개요

AI 격차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균형을 의미하며, 양질의 데이터, 연산 인프라, 인력, 제도적 지원이 고르지 않아 일부 국가와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는 현상입니다. 과거 '디지털 격차'가 인터넷 접근의 문제였다면, AI 격차는 경제력·산업 경쟁력·사회 기회의 차이로 확산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지만,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은 기술 투자와 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습니다. 국가 간 기술 수준도 빠르게 벌어져 선도국은 표준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후발국은 수용자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에도 AI 이해도와 활용 능력의 차이가 커지며, 이는 교육·고용·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격차의 원인

AI 격차는 데이터, 인프라, 인력, 제도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 역량이 부족합니다. GPU,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고성능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조직이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 핵심 인력이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면서 지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규제, AI 윤리 기준, 연구개발 투자 수준의 차이는 국가 간 기술 성장 속도 차이를 심화시킵니다.

AI 격차의 완화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연구기관이 고성능 연산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AI 기초 교육을 정규화하고, 비전공자 대상 실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공공·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해 윤리·데이터 보호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